참여하는 시민운동 · 실천하는 환경운동

여수환경운동연합 2004년 8월 활동일지

2일 : 통일연대 회의
3일 : 교보 환경활동가 해외연수 결과발표회/서울
4일 : 여름철 냉방에너지 사용 실태조사/여수
8일 : 통일연대 행사/거북공원
9일 : 도서지역 쓰레기 실태조사/금오도 외
10일 : 일본견학 설명회/공발협 회의실, 반핵 광주전남대책위원회 회의/장흥
12일 : 환경정의시민연대 여수 견학
14일 : 늑색연합 대학생 환경순례단 여수 방문
16일 : 일본견학(~20일)
17일 :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임시회/여수환경연합 회의실
20일 : 광양만 환경관리해역 환경상태 평가를 위한 워크숍/광양
22일 : 제1회 한국 에너지의 날 행사/서울
24일 : 여수KBS이전 반대 대책회의/의제 회의실, 엘지정유 기름유출 사고 현장 조사
24일 : 화양농공단지 환경오염 조사/화양면
25일 : 광양만환경개선대책위원회 회의/광양, 여수KBS 이전 반대집회
26일 : 생태산업단지 간담회/한화석유화학 회의실, 광양만 환경조사-대조군/벌교
27일 : 광양제철소 황의 집회, 전국 사무국, 처장단 회의/전남 광양(~28일)
28일 :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하계수련회 및 8월 정례회/방죽포 해수욕장
30일 : 아름다운여수21실천협의회 연구위원회 회의/의제 회의실

9월 일정공지

1일 : 여수산단 제2소공원 조성공사 준공식
3일 : 여수환경연합 회원모임 및 아외영화 상영 /신기공원, 연등천, 도서지역 환경조사/연등천, 돌산
5일 : 하안연꽃 기금마련 김덕수 사물놀이 공연/시민회관
7일 : 환경교육/순천 별량
8일 : 광양만 환경조사- 수질/광양만
9일 : 3여통합 기념식, 삼남석유화학 기름유출사고 복원현장 모니터링
10일 : 광양만 환경조사- 저질/광양만, 장흥 핵폐기장 유치 반대집회/전남 장흥
10일 : 도서지역 재생가능에너지 현장답사/여수 하화도
12일 : 평화 유랑단 여수 방문/여수시 청소년 수련관
13일 : 평화 유랑단 여수 방문/강연회(시민협), 집회(쌍봉사거리)
13일 : 에너지시민연대 운영위원회 회의/서울
14일 : 정기이사회/여수환경운동연합 회의실
15일 : 공발협 환경, 안전분과 회의/공발협 회의실
16일 : 광양 태인도 건강조사 최종발표회/광양 시청, 녹색교통 도시만들기 불법 주, 정차 근절 시민토론회/시민협 회의실
17일 : 광양만 환경조사- 포화저질/경북 포항, 아름다운여수21실천협의회 이사회, 연구위원회 회의/여수시 제2청사 상황실
17일 : 환경영화제/무선공원
18일 : 전남환경운동연합 임원수련회/전남 목포, 국제연안정화의날 맞이 가막만 정화활동 및 캠페인/가막만
21일 : 아름다운여수 21실천협의회 시민사업팀 중간보고회 여수시 제2청사 소회의실
21일 : 여수 에너지기본조례 제정 토론회

여수환경운동연합 회원여러분!
한가위 명절 편히 보내세요!

– 공동대표, 이사, 사무국 일동 –

별주부 모임 동정보고------황명선(여수환경운동연합 회원,별주부 회장)

주제 : 대안 생리대 만들기
- 장 소 : 하나미네 집(신원 금호아파트)
- 시 간 : 2004년 8월 28일, 11시부터 쭈욱~
- 참석자 : 방윤희와 그 아이들, 강선희와 그 아이들, 박영미와 그 아이들, 박정임과 그 아이들, 김진희와 그 아이, 하나미와 그 아이, 김은영과 그 아이들, 황명선과 그 아이... 합이 21명
- 과정 및 후기

회원용 생리대의 분배점에 대해서는 저번 아줌마 모임이나, 다양한 자료들을 통하여 알게 되었지만, 중요한 것은 실천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실천이라는 것이 혼자서는 잘 안된다 그말이죠. 대안생리대, 쓰 면으로 만든 생리대라면 직접 만들어야 하는데, 바쁜 일상에서 혼자 만들기가 쉽지 않죠? 그런 면에서 이번에 한 자리에 모여 이런 저런 살아가는이야기속에 피어나는 끈끈한 정과 손을 통해 한땀 한땀 만들어진 대안 생리대는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행동으로 보이는 아줌마들, 짐말 멋지십니다. 참고로 실내에서 같은 장난감 가지고서로 싸우지 않을까, 아이들 싸움 말리느라 파연 대안 생리대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염정난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고, 열정 잘 놀아준 아이들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고맙다, 애들아...

여수환경운동연합 2004년 8월 재정보고

(단위:원)

수 입			지 출		
회비	일반회비	3,989,960	운영비	상근활동비	2,970,000
	이사회비	655,000		상 여 금	
	특별•단체	100,000		복리후생비	240,000
				국 민 의 료	180,000
				퇴 직 금	200,000
				출장교통비	235,000
				제세공과금	46,270
				소 모 품 비	5,000
				통신우편비	192,070
				자료구입비	
				차량운영비	450,500
				집기비품비	
				회의경조비	100,000
				차량보험료	
	소 계	4,744,960		소 계	4,618,840
사업	사무국	940,000	사업	사무국사업	1,707,500
	생활환경			생 활 환 경	2,080,910
	회원재정	3,000,000		회 원 재 정	1,716,000
	정보교육	1,000,000		정 보 교 육	378,500
	소 계	4,940,000		소 계	5,882,910
계		7,525,120	잡 비		4,500
이자수입			차월이월금		147,062
전월이월금		334,052	계		10,506,250
총 계		9,684,9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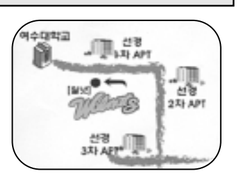
8 월분 회비납부자

강관중, 강대영, 강대진, 강병석, 강성군, 강영자, 강용주, 강원도, 강의수, 강재현, 강점덤, 고병문, 고성환, 곽달기, 곽영리, 곽용규, 구영서, 권승철, 권인룡, 길형철, 김경도, 김경만, 김경숙, 김광철, 김군재, 김근영, 김낙준, 김대성, 김대천, 김대희, 김덕이, 김도연, 김도형, 김동채, 김두희, 김만식, 김명석, 김명숙, 김명진, 김무진, 김미란, 김미란, 김미향, 김병철, 김상미, 김상복, 김상희, 김선종, 김선철, 김성근, 김성근, 김성수, 김성열, 김순기, 김순아, 김순의, 김승민, 김안식, 김연자, 김연주, 김영대, 김영란, 김영록, 김영숙, 김영옥, 김영진, 김영호, 김오경, 김오수, 김옥규, 김용현, 김우인, 김유성, 김은경, 김은주, 김은주, 김 의, 김일주, 김장규, 김장호, 김재원, 김점유, 김정미, 김정순, 김정영, 김정일, 김정현, 김종식, 김종수, 김종철, 김종현, 김중현, 김중훈, 김주남, 김지연, 김진숙, 김진영, 김진호, 김진희, 김찬욱, 김창배, 김천미, 김충석, 김태섭, 김태성, 김학중, 김학태, 김해효, 김행숙, 김현수, 김형남, 김혜정, 김화자, 김효진, 김흥례, 김희수, 김희철, 나영문, 남선희, 류동원, 류원석, 류재형, 류적용, 문경훈, 문동석, 문복자, 문봉언, 문영홍, 문용기, 문우열, 문은태, 문인옥, 문정희, 박경수, 박경임, 박경호, 박근호, 박남옥, 박동철, 박두남, 박두환, 박상규, 박상신, 박상표, 박상희, 박선자, 박성은, 박성환, 박소윤, 박승용, 박영미, 박영학, 박용철, 박우순, 박은아, 박은아, 박은현, 박일순, 박장순, 박정열, 박정임, 박정철, 박종안, 박종우, 박종화, 박지영, 박진경, 박찬용, 박창서, 박청희, 박춘길, 박현호, 박형근, 박형철, 박혜선, 박혼희, 박희우, 방윤희, 배선주, 배윤숙, 배인경, 배창철, 백선희, 백성철, 백형주, 변영휘, 변용국, 봉천희, 서성전, 서영호, 서태민, 선준규, 성해석, 성화정, 소영호, 손 연, 손우정, 손운성, 손장평, 손희창, 송기봉, 송기석, 송수종, 송숙영, 송주석, 송호종, 송효숙, 신미령, 신미숙, 신민례, 신상훈, 신진우, 신현출, 심명봉, 심의경, 안상희, 안영종, 안영주, 안양주, 안용준, 안지산, 양미령, 양애령, 양영미, 양자연, 엄익상, 에코필, 여창인, 오경자, 오경희, 오선덕, 오순아, 오승택, 오유석, 오윤기, 오종록, 오창수, 오창준, 오철근, 오태인, 우창정, 위성화, 위창희, 유숙경, 유지형, 유홍석, 윤상목, 윤성환, 윤영철, 윤운길, 윤주성, 윤현정, 윤형혁, 이 구, 이강준, 이강진, 이건영, 이기동, 이나란, 이남주, 이대성, 이동길, 이동찬, 이미선, 이민식, 이민종, 이상율, 이상훈, 이성진, 이수열, 이수정, 이수현, 이순금, 이승로, 이승미, 이승범, 이승우, 이옥방, 이용범, 이원희, 이일산업, 이재준, 이정주, 이정철, 이정훈, 이종민, 이종욱, 이주미, 이준옥, 이창근, 이춘재, 이춘학, 이충원, 이현섭, 이현숙, 이현준, 임정화, 임종악, 임치택, 임형숙, 임호상, 장경훈, 장대홍, 장문진, 장미령, 장병기, 장선심, 장원석, 장윤선, 장은하, 장점석, 장혜옥, 전경숙, 전선숙, 전영순, 전태식, 정기령, 정기환, 정동진, 정미애, 정병관, 정병선, 정병진, 정선희(이양로), 정송호, 정우철(고군영), 정원희, 정일선, 정정봉, 정종철, 정지환(최순희), 정창렬, 정차영, 정충미, 정형봉, 정희선, 정희택, 제정화, 조경배, 조대성, 조석래, 조성호, 조영빈, 조영자, 조원래, 조윤옥, 조재영, 조정기, 조천래(정은숙), 조현서, 조현정, 조혜정, 조호진, 주우희, 주원석, 진광화, 진달래, 진미령, 진성문, 진주영, 차인환, 차창현, 천상욱, 최동규, 최병두, 최상덕, 최상원, 최성준, 최은희, 최재영, 최점수, 최정호, 최종기, 최종남, 최지영, 최진우, 최평용, 최환란, 최형선, 추용엽, 하니미, 하미령, 하재길, 한학재, 함영일, 허성자, 홍석봉, 홍성환, 홍순갑, 홍순근, 황광순, 황광식, 황명선, 황명순, 황명임, 황보연, 황은하, 황종현, 황치호, 황현수, LG화학사회봉사단

■ 2004년 8월 신입 회원명단
여수환경운동연합 회원에 가입하여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강원도, 정점석, 박정환, 한정규, 이문석

<사업체소개>

월넛
무설탕 웰빙 호두파이 전문점
(본점 : 신성A 1차 건너편, 학동점 : 동문건합아원 건너편)
Tel. 061-654-5282(본점), 685-5282(학동점)



환경보전의 첫걸음
환경운동연합의
회원이 되어 주십시오
회원가입 682-0610~1

물·맑은·동리

http://yosu.kfem.or.kr
참여하는 시민운동, 실천하는 환경운동

발행처 : 여수환경운동연합 발행인 : 진옥 • 김정명 • 류중구 주소 : 전남 여수시 신기동 20-9(2층) 전화 : (061)682-0610 팩스 : (061)691-0680 E-mail : yosu@kfem.or.kr

LG석유화학 폭발사고 관련 성명서 발표

"전체 공장에 대한 공정정밀진단과 재발방지 대책 수립을 촉구"

지난 8월 25일 오후 LG석유화학 1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사고로 1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날 폭발사고는 무선지역까지 폭발음이 들릴 정도의 강한 폭발음을 동반했으며 중흥동 일부 주민들의 경우 흥국체육관으로 대피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폭발사고 현장은 폭격을 맞은 것처럼 관로들이 심하게 뒤틀려 있었으며 주위는 폭발로 인해 발생한 파편들이 여기저기 널려있었다. 이번 폭발사고는 미량의 황이 함유되어 있는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촉매를 교체하던 중 화재가 발생하면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날 사고로 촉매 교체작업을 하던 주모씨가 사망하고 윤모씨는 2도 화상을 입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폭발사고와 관련해 성명서를 발표하고 지난해 실시된 개별업체 특별안전점검결과 공개와 이행정도를 공표할 것을 요구했다.

환경련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LG석유화학사고가 환경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지역민의 민의를 묵살한 사고로 간주해 LG석유화학측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고 선언하고, 환경련은 "특히 현재 비상가동을 진행중에 있는 LG정유의 공장에서도 대형폭발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며 노사화합을 통한 조속한 공장정상화를 촉구하며 LG정유에서 발생한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LG정유 강력하게 규탄하는 활동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다해 엄격히 책임을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안전불감증으로 기인한 사고로 작년 10월 호남석유화학, 올해 6월 LG화학 등 지난 30여년간 200여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며 산단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환경련은 또 "지난해 발생한 호남석유화학 폭발사고 이후 여수산단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했지만 여수산단이 안전하고, 계획적 관리만 한다면 문제가 없다라는 형식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이번 폭발사고를 초래하게 되는 원인이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LG석유화학은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사고에 대해 여수시민에게 공개사과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 관계당국은 철저한 수사와 관련자 시법처리 산업자원부는 여수산단의

형식적인 특별점검을 무효화하고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안전점검을 재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2004년 9월호

이 달의 주요기사

1면 LG석유화학 폭발사고 관련 성명서 발표
2면 냉그룹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3면 일본의 광양만을 가다
4면 9월 일정공지

안내

여수환경운동연합 회원모임 및 환경영화 상영 안내

여수환경운동연합은 2001년 올해 신기동 사무실로 보금자리를 옮기면서 아외영화상영을 통해 이 지역 주민들과 환경연합 회원님들과의 만남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환경운동을 지역주민들과 함께실천하고 행동하는 계기가 되도록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 2004. 9. 17(금) 19 : 00
- 장소 : 무선공원
- 주최 : 여수환경운동연합
- 주관 : 여수환경운동연합 회원재정사업위원회
- 문의 : 여수환경운동연합 682-0610, 담당 강흥순 국장(016-244-0288)

환경영화제, 하화도 견학

태양광 발전 단지 하화도 답사 참가자 모집안내

제 1회 우리지역의 재생가능에너지 현장을 찾아서

석유자원의 고갈로 인한 고유가시대와 지구 온난화를 탈피하기 위해 전 세계적으로 재생가능에너지를 이용한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를 생산보급하고 있습니다. 여수환경운동연합은 우리지역에서 실제 재생가능에너지를 적용하고 있는 지역을 답사하고 여수지역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보급 활동을 위해 제1회 우리지역의 재생가능에너지 현장을 찾아가는 행사를 개최합니다.

- 일시 : 2004. 10. 9(토) 13 : 30
- 장소 : 화정면 하화도 태양광발전단지
- 인원 : 30명 선착(10월 2일까지 접수마감)
- 주최 : 아름다운 여수 21실천협의회
- 주관 : 여수환경운동연합
- 참가비 : 성인 1만원, 학생 5천원
- 접 수 : 여수환경운동연합 682-0610, 담당 문갑태 부장(019 -296- 1843)

이사칼럼

냉각탑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장대홍
(여수 환경 연합실행이사)

우리 일상 생활에서 발생되는 환경오염원은 많다. 많은 환경오염원 중에서는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오염원인지 알면서도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 있다. 어쩔 수 없이 사용해야하는 오염원이라면 그 사용량을 최소화하면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말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항이다. 그러나 실천이 잘 되지 않는다. 내가 일하는 업종은 냉각수 및 보일러 폐수처리 약품을 여천공단에 공급하는 것이며 주된 업무는 이러한 약품들을 적절하게 사용하게 하는 것이다.산업체에서도 환경 오염원인지는 알지만 설비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사용되는 약품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서 냉각수 처리를 위한 부식(녹) 방지제가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여수산단에서 사용되는 냉각수 부식방지제의 주성분은 인산과 아연이다. 냉각수 처리를 위해 약품을 공급하는 업체 및 냉각탑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회사에서는 수질관리 기준법 상 배출허용기준치를 준수하여 배출을 하고 있으므로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되는 냉각수의 양과 누적된 양을 생각해 본다면 이야기는 달라 질 수 있다. 냉각수처리용 약품의 변천사를 보면 1960년대까지는 크롬만 사용하였으며, 1970년대 초반까지는 크롬과 아연을 사용하였고, 1970년 후반부터 1980년대 초반까지는 아연이 주성분이었으며,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인산과 아연을 주성분으로 사용되어 왔다. 가장 좋은 부식방지제로는 크롬이다. 그러나 크롬을 사용할 경우 중금속 중독 등 환경적 재앙이 따르므로 현재는 사용하지 않는다. 냉각수는 산업체에서 열교환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으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냉각수에서 배출되는 것은 대기 중으로 증발(산란)에서 수증기가 제일 많이 보이는 것이 냉각탑에서 배출되는 증발 수이다.)되는 것과 부식(녹)과 스케일(관석)을 방지하기 위해 농축도(물을 끓이면 수증기가 날아가고 물 중에 존재하는 칼슘, 마그네슘, 철, 염소이온 등이 남는데 계속 물을 공급하면 이 성분들이 계속 농축된다.)를 관리하기 위해서 냉각수를 희석하는 호수, 바다에 배출한다.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대부분은 수증기다. 그러나 냉각수 중에는 미생물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미생물을 제거하기 위해 미생물 살균제를 투입하는데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염소계 살균제이다. 염소계 살균제는 일부 휘발성이 있어 수증기와 함께 대기중으로 방출되는 것이다. 냉각탑 주변에서 락스(염소) 냄새가 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염소 성분이 일부 물질과 결합하여 인체로 유입될 경우 앓을 유발할 수 있다. 강이나 호수, 바다로 배출되는 냉각수는 냉각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분을 배출한다고 보면 된다. 부식방지제로 사용되는 인산과 아연 그리고 미생물 살균제, 농축된 각종 미네랄 등이 모두 배출되는 것이다. 냉각수의 경우 수질환경 보전법상 폐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하천이나 호수, 바다로 직접 배출하게 되어있으며, 폐수처리장으로 유입될 경우 회석수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는다. 왜 희석수로 간주되어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는 의문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냉각수는 강이나 호수, 바다로 직접 유입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현재 주로 사용되는 인산과 아연의 경우 수질관리법 상 배출 허용기준치(총인 8ppm, 아연 5ppm)를 준수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연 또한 중금속이기 때문에 인체에 농축이 되면 중금속에 의한 장해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인산은 미생물의 먹이가 되기 때문에 호소 및 바다에 부영양화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최근 여수산단에 있는 바다에서는 아연 농도가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 배출허용기준치는 준수되었지만 냉각수가 계속적으로 배출됨에 따라 아연 농도 등은 분해가 되지 않고 농축이 되었고, 또한 대형 냉각탑에서 배출되는 냉각수 양이 많으므로 총 양적으로 볼 때는 많은 양의 아연과 인산이 배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산업 설비를 보호하고 안정적인 조업을 위해서는 냉각수의 부식방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이에 따르는 환경오염 또한 우리는 무시할 수 없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가? 사두어서 말 한마와 같이 오염원 배출을 최소화 하는 것이다. 냉각수에서는 농축도를 조절하기 위해 배출을 한다고 앞에서 설명한 적이 있다. 농축도를 상승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냉각수의 배출량이 줄어들게 되므로 환경오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인산과 아연의 배출량이 감소되는 것이다. 특히 대형 냉각탑(NCC 공장)의 경우는 배출되는 냉각수양이 소형 냉각탑 보다 월등히 많으므로 대형 냉각탑의 농축도가 상승하다면 광양만권의 수질 오염은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대부분의 냉각수 처리용 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서는 농축도를 상승시키는 프로그램들이 있으며, 농축도를 상승할 경우 환경오염원을 줄일 수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약품처리 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도 있다. 이럴 경우 나와 같이 약품을 공급하는 업체에는 타격이 있겠지만 상대적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가 크므로 농축도는 증가되어야 된다고 판단된다. 끝으로 우리 여수의 해양 오염을 방지하고 안정된 조업과 설비 보호를 위해 냉각수처리 약품을 적절하게 사용하고 관리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 사람들이 폐수처리장 관리는 잘 하고 있으나 냉각수는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냉각탑을 가지고 있는 산업체와 냉각수 처리용 약품을 공급하는 업체 모두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한다면 우리 여수 바다는 살아 숨쉬는 청정 해역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회원의글

감기에 좋은 식품- 칡

이순금 회원 (우리한약국 한약사)

여름이 지나고 환절기에 접어든 요즘엔 밤낮의 기온차가 심해 감기를 앓거나 목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다. 꼭 감기는 아니더라도 가족의 건강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집안에 준비해두고 먹을 수 있는 약재를 한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칡이다. 칡은 여러가지를 약재로 쓰는데 이름별에 나오는 새순, 칡꽃, 그리고 대표적으로 칡뿌리이다. 늦은 여름에서 가을까지 보라색으로 피는 칡꽃(葛花)은 빛깔도 예쁘거니와 꽃을 말려 달여 먹으면 술독을 풀어주고, 갈증을 없애주며, 비장에 작용하여 입맛이 없고 소화가 안될때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칡뿌리(葛根)는 늦은 가을이나 봄에 뿌리를 채취하여 말려서 쓰는데 맛이 달고, 성질이 서늘하다. 위경에 작용하여 땀이 나게 하고, 열을 내려주며, 진액을 보충해주고, 갈증을 없애고, 발진이 순조롭게 나도록 해주고, 과음하는 사람의 술독을 풀어준다. 이러한 갈근의 효능은 감기환자에게 특히 좋은데, 열이 나면서도 땀은 나지 않고 가슴이 답답하고 갈증이 나며, 목뒤와 뒷덜미가 뻣뻣하고 아픈 감기에게 많이 쓰인다. 더불어 갈증이 심하고 물을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 소갈증 환자, 고혈압으로 뒷목이 뻣뻣한 환자에게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 또 갈근을 구워서 사용하면 설사를 멎게한다. 말린 칡은 하루에 6~12g정도를 달여서 차로 마시거나, 생칡을 즙을 내서 먹으면 좋다. 주의할 점은 위장이 너무 차서 구토를 하거나, 감기로 땀을 많이 흘리는 사람은 삼가해야 한다.

별주부 정기모임을 준비하며...

일회용 생리대에도 다이옥신이?

여성으로 태어났다면 누구나 피해 갈 수 없는 달거리 행사를 어떻게 생각하고 맞이하고 있나요? 생리가 생명활동과 연관된 소중한 것인지는 일찌는데, 애를 돌이나 낳고 기른 엄마가 된 지금도 생리와 관련된 모든 것은 부끄럽고 심지어 불결하게 까지 느껴지지도 합니다. 생리대를 사러 갔다가 뜻하지 않게 가게 보는 '아저씨'를 만나면 슬그머니 다른 물건을 사가지고 나온 기억도 납니다. 생리는 여성이 하지만 생리와 관련된 역할과 기능은 여성만의 일이 아니며, 생리와 관련된 생리대의 가격과 안정성의 분제는 사회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일 인데도 참 은밀하게 이루어집니다. 초경이 시작된 순간부터 생리대는 세헌한 것, 수퍼에 가면 언제든지 살 수 있는 것, 한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 생리대만을 떠올리는 것이 언제부터 당연해 졌을까요? 그리 오래된 것 같진 않아요. 우리 엄마세대 때만 해도 대부분 면 생리대를 사용 하셨잖아요. 환경운동연합 주부모임(별주부)에서 대안생리대를 이야기 주제로 정하고서 여기저기 자료를 찾아보았더니 대안생리대를 먼저 고민하고 실천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만나게 되었습니다.함께 나누고 싶어 자료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대안생리대는 무엇에 대한, 혹은 무엇에 저항하는 대안이나 하는 것인데요. 일차적으로 간단하게 탐폰과 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말에 좀 더 의미를 부여 하자면 첫째, 탐폰과 일회용 생리대는 여성의 몸에 해롭습니다. 미국 환경청 EPA 자료를 보면 생리대에는 염소표백의 부산물인 다이옥신과 흡수제로 쓰이는 레이온이라는 두 가지 위험 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다이옥신은 발암물질이자 면역체계 및 생식 계통에 독성을 미치는 물질이다. 1996년 9월에 발표된 미국 환경청 EPA 보고서에 따르면, 다이옥신은 몸에 쉽게 축적되기 때문에 아주 낮은 수준이라도 다이옥신에 노출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 다이옥신에 반복적으로 노출될 때 그 위험성은 매우 커진다. 일반적으로 가임 여성이 하루에 평균 5개의 생리대를 사용하고, 한 달에 5일씩 생리를 한다고 하고 가임 기간을 38년으로 계산하면, 한 여성은 평생 동안 총 1만1400번 다이옥신과 반복적으로 접촉하는 셈이다. 자궁내막증은 월경과 관계된 질병인데 불임의 주된 원인이 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다이옥신에 노출된 붉은털 원숭이의 79%가 자궁내막증에 걸렸다고 한다. 젊은 여성의 몸에서 가장 흡수력이 강한 점막인데 일회용 생리대를 쓰면 그 속에 함유되어 있는 다이옥신과 같은 화학물질이 질 속으로 흡수될 것이고, 가려움증이나 짓무름뿐만 아니라 자궁경부암과 같은 다양한 자궁질환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요즘은 미혼 여성들도 자궁관련 질환들로 산부인과를 많이 찾는 다고 하는데 혹 일회용 생리대에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물찌, 자연 환경을 파괴시킵니다. 땅과 하늘을 이어주는 신령한 존재인 나무가 한낱 펄프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또 엄청난 쓰레기로 토양과 강을 오염시킵니다.(종이컵 썩는데 25년, 생리대 기저귀는 100년이상) 셋째, 탐존과 일회용생리대는 여성 억압적 가치를 확대 재생산시키고 여성들이 계속해서 남성중심의 산업 자본에 의존하여 여성 자신의 DIY(Do It Yourself)적 실천을 방해하고 월경을 자신이 아닌 남(남)이 관리하도록 하게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여성 억압적 관념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죠. 생리대 광고를 보면 온통 편리함과 깨끗함을 강조하는 것뿐인데, 이는 생리란 일래 불편하고 지저분한 것이라는 전제에 기인합니다. 광고 모델들을 보면, 한결같이 순결한 20대 여성들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일회용 생리대가 여성에게 상당한 자유 혹은 해방을 주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일회용의 편리성을 인정하지만 이제는 편리함만을 추구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보'라는 이름으로 축복했던 것들로부터 생존을 위협받을 정도의 전 지구적인 생태 파괴라는 위기의식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대안생리대의 종류를 보면 키퍼, 헤면,면 생리대로 나눌 수 있는데요. 키퍼,헤면은 물다 삽입형 생리대인데 천연 성분이라 탬포의 독성쇼크증후군 같은 위험한 부작용이 없다고해요. 헤면은 천연 바다 스펀지로 6-8개월 동안 쓸 수 있고요, 키퍼는 천연고무로 만든 생리컵으로 10년간 쓸 수 있는데 새지 않는 게 제일 좋다고 하구요. 헤면은 3시간마다 바꿔주고(두개가 한세트) 뺀 간 씻어주고 키퍼는 양 젤 많은 날 빼곤 하루에 한번씩만 비워주면 된다구요. 여기서는 주로 면 생리대에 관한 간략한 대안 생리대를 만들거나 구입하려고 하는 분들이 주로 걱정하는 것은 첫째, 새지 않을까 하는 것인데요. 감쪽같고 보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남성의 입장에서 월경혈을 본 것일에 불과하죠. 그만큼 생리대 산업은 남성 중심적이라는 반증이기도 하죠. 왜 감쪽같아야 하죠? 초박형 생리대를 만들기 위해 엄청난 화학첨가물이 늘어가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왜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거죠? 물찌, 블랜하지 않을까 걱정인데요. 생리대를 '뽀고 말리는' 것은 물론 '쏘고 버리는' 것보다 블랜하지만 팬티, 러닝셔츠 등을 빠는 것과 식사 후 그릇을 닦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생리대를 속옷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블랜함은 훨씬 덜할 듯하네요. 집에서는 종이컵을 쓰지 않지만 딱히 블랜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과 비슷해질 겁니다. 셋째, 냄새에 대한 질문일텐데요. 이 역시 냄새가 나지 않아야 한다는 강박으로 인한 물음. 실제로 월경혈 자체의 냄새는 그리 강한 편이 아니 오히려 일회용 생리대의 냄새의 합해져 더욱 강하게 나는 것이 아닌가 싶아요. 넷째, 하얀색에 대한 강박인데요. 면생리대를 쓰려면서도 조금의 얼룩도 용서를 못해 표백제를 사용하더라구요.꼭 흰색이아니라면 오히려 진한 색은 얼룩도 남지 않아 훨씬 편리하겠죠. 실제로 면생리대를 사용해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흡수량도 많고, 냄새도 나지 않고,촉감도 좋고, 짓무름도 없고, 을~쓰레기 배출량을 줄이는 것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생리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놀이 조금씩 자리 잡아 가구요. 면 생리대를 쓰시려면 먼저 양이 적은 날 ,집에 있는 날부터 천천히 사용해 보세요.무슨 일이든 너무 무리하면 오래 가지 못하니까요. 헤면이나 키퍼, 면 생리대는 쉽게 구입할 수도 있구요. 시간이 되시면 이웃님과 친구들과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며 만들어 보신다면 더욱 좋으실 겨구요.그 옛날 빨래터에서처럼.

여수의 생태 이야기

들꽃이야기-9월 상사화

장철호(여도중학교 교사, 여수환경운동연합 회원)

나는 사람이 떠난 쓸쓸한 폐가를 보면 그냥 잘 지나치지 못한다. 왜냐하면 그 공간에는 어느 시간동안 그 나름에 방식으로 애정를 쏟았던 그 집주인의 향내를 더듬는 것이 무척이나 흥미롭고 가슴설레기 때문이다. 그런 나의 취향에 이끌려 아직 겨울 바람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인 이른 봄에 우리집에서 조그마한 언덕을 넘어 쉽게 다다를 수 있는 거리에 조금은 가난했을 것 같은 조그마한 폐가를 둘러보는데 발밑에 갖난아이 핏덩이 모양과 크기의 새싹이 나의 호기심을 일순간에 사로잡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무엇일까 몇 번 고민하던 나는 결국 몇 움큼을 포대에 담아 집 마당에 옮겨 놓았다. 시간이 갈수록 무럭무럭 자라 6월이 되니 큰 바나나모양으로 잎을 젖히면서 풍성한 포기가 되었고, 나는 푸르름 후에 피어나는 꽃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러나 살피기를 게을리 하던 몇 칠 사이에 그 푸르던 잎새는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제야 가물하던 나의 지식이 확연히 '아 이것이 상사화구나'라고 떠오르고 자루한 시간 끝에 알게 된 하나의 물음에 대한 답으로 잠시 행복하였다. 모든 식물들은 자신의 삶 속에서 때에 따라 스스로의 에너지를 집중하게 되는 데 싹을 틔우고 잎을 만들면서는 가장 많이 햇빛을 받기위해 이웃 식물과 부대끼면서 잎을 키우고 조금이라도 넓게 자신의 세력를 펼치는데 집중하고, 꽃을 피우면서는 잎은 조금씩 움추리면서 푸르름이 쇠하고 벌과 나비에게 자신을 잘 알리기 위해 꽃꼴기를 높이고 색깔과 향기를 만드는데 집중한다. 그러나 일단 수정이 끝나면 골마로 꽃잎을 떨어뜨리며 씨앗을 충실하게 하는데 노력하고 충분히 여물어지면 자신의 종자를 어떻게 하면 멀리 퍼트릴까에 에너지를 집중하는 것이다. 이러한 식물들의 생태에 비추어 볼 때 상사화는 성질이 화끈한 녀석이 분명한데 이유인즉슨 2월에 왕성맞은 잎을 삐죽 내밀어 녀댓달 진한 녹색으로 자라 자신에게 필요한 양분을 충분히 저장했다 싶으면 하루아침에 깨끗이 자신의 잎을 땅위에서 지워버린다. 그리고 한 달여의 시간이 지나면 하루 아침에 30cm정도의 꽃대를 세우는데 마술에서 보면 기다란 봉에서 갑자기 꽃봉치가 튀어나는 것 같은 모습이다. 정말 화끈하지 않는가? 이렇게 잎과 꽃이 절대 같은 시간에 함께하지 않는 생태를 보고 인간이 '아루어 질수 없는 사랑'이라는 꽃말을 붙여 놓았고 이름도 '상사화'라고 붙이게 된 것이랍니다.

좋아하면서도
만나지 못하고
서로 어긋나는 안타까움을
어긋나보지 않은 이들은
잘 모릅니다
날마다 그리움으로 길어진 꽃술
내 분홍빛 애틋한 사랑은
언제까지 홀로여야 할까요?

– 이해인 '상사화' 의 일부–

이러한 연유로 절집 화단에 많이 볼 수 있는데 사실은 알뿌리의 방부효과 때문이라고 합니다. 불경 같은 책을 엮는데 쓰는 접착제에 넣거나 탱화를 그릴 때 알뿌리의 즙을 섞으면 좀이 슬거나 색이 바래지 않게 해주기 때문에 항상 곁에 심어두고 이용했던 것이랍니다. 상사화류는 상사화, 석산, 백양꽃등 몇가지가 있고, 개화기에 따라 7~8월에 개화하는 상사화형과 9~10월에 개화하는 석산형으로 구분되는데 영광에 불갑사나, 고창 선운사의 숲그늘에 무더기로 피어나 많은 사람들의 탄성을 자아내는 진붉은 꽃은 '석산'(꽃무릇)이라고 해야 정확한 이름이니 구분하여 불러주시고, 즐겁게도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상사화는 앞서 기술한 특이한 생육습성을 지니고 있고, 적색, 분홍색, 흰색 등 화색이 다양하여 외국원종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어 앞으로 애호가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지희 집 마당에는 요즘(9월 5일) 상사화는 꽃잎이 막 시들었고, 담 밑으로는 석산 수백촉이기도하는 손처럼 솟아오르고 있는데, 이제 3~4일이 지나면 나무 밑이 붉은 천이 펼쳐지는 장관이 된다. 이렇듯 석산은 그 번식력이 왕성하고 사람들의 기호에 잘 맞아 우리 여수의 등산로 주변에 가꾸어 보면 산을 찾는 이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다른 분의 생각은 어떠신지 ····

환경연합은 말한다

일본의 광양만을 가다.

황주찬 (여수 환경운동연합 회원부장)

8월 16일 오전 7시 30분. 여수시 2청사 잔디밭... 조금 일찍 집을 나선 듯한 느낌이 들었지만 견학을 준비한 담사자로서 다른 이들보다 일찍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알행이 도착하기 전 잠시 생각해보니 견학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일들이 새삼 떠올리 없은 미소가 스쳤다. 그리고 견학을 모두 마친 듯 마음 한구석이 허전해졌다. 하기야 견학을 준비한 담사자로서는 몇 분 후 출발하게 될 버스에 몸을 실는 순간부터 계획된 일정대로 움직이기만 하면 되니 일정의 절반은 마친 셈이리라. 견학을 준비할 담시 주위 몇몇 분들은 과연 이 견학이 성사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졌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도 그럴것이 민, 관, 산, 학의 이질적인 구성원들이 광양만의 환경문제 해결을 주제로 견학을 추진한다는 자체가 아직은 시기상조인 듯도 하였다. 그러나 견학팀이 광양만 환경문제 해결이라는 견학목적을 구성원 나름대로 이해하고 서로 공통의 목적을 찾을 수만 있다면 이는 광양만의 환경개선을 위해 더할 수 없이 소중한 토대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이쯤해서 견학 목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이번 견학은 크게 3가지 목적을 달성하고자 기획되었다. 첫째, 민 · 관 · 산 · 학이 함께 광양만과 흡사한 일본 산업단지 지역 견학을 통해 그곳의 환경실태와 지역민과의 관계를 알아보고 이를 광양만권 산업단지에 적용하므로서 광양만의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둘째, 일본의 광양만이라 할 수 있는 오카야마현 미즈시마지구 공장 견학 및 주변지역 환경조사를 통해 광양만과 미즈시마의 환경을 실제 비교, 분석하여 광양만 환경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끝으로 요카이치 천식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공해병 소송에 대해 전문가 면담과 관련 정보를 확보하여 광양만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8월 17일,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요카이치 시청을 찾아가는 길에 약간의 착오 생겨 예정된 시간보다 30분정도 늦게 도착하였다. 우리는 요카이치 시청에서 시 공무원으로부터 요카이치 시의 환경관리 실태와 공단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들은 후 요카이치 천식 소송 과정을 담은 영상물을 시청하였다. 나는 영상물의 내용도 내용이었지만 견학단 개개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더욱 궁금하였다. 견학을 마친 후 곧바로 이동하여 간담회를 진행하였다. 각자 기탄없는 의견을 내놓았으며, 이견도 있었지만 열띤 토론과 함께 서로를 이해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8월 18일, 자난밤 교통사고는 비로 인명사고까지 발생하였으나 날씨는 맑고 무더웠다. 여름의 한복판을 일본 오사카에서 보내게 된 것이다. 일본의 3대 성 중 하나인 오사카성과 일본의 유명한 거리를 걸었다. 걸 모습은 한국인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비슷하지만 생각은 너무 큰 차이가 있는 일본인... 타인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는 일본인 그것이 타인을 배려해서가 아니라 자신에게 돌아올 부담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 때면 장이 뒤 떨어진다. 그 럴지만 나는 일본의 또 다른 모습을 보기도 하였다. 개인적으로 일본방문이 3번째지만 일본을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은 "일본에서는 어떤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그 제도의 목적에 맞게 잘 운용이 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8월 19일, 견학단은 아침식사를 마치고 미즈시마지구에 있는 미스비시화학(나는 이 대목에서 여수산단의 모 팀장님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과 신일본제철을 견학하였다. 미리 공문을 보낸 관계로 일정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특히, 신일본제철에서의 공장 관계자와 간담회는 매우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광양만 입주 기업 중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제철소 응축수내 독극물(CN-청산가리) 처리에 관한 귀중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으며,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면 보다 많은 대화를 나누고 싶었지만 한정된 시간관계로 아쉬움을 남기고 이동해야 했다. 남은 일정을 위해 이동하는 중에 "일본의 광양만"이라 할 수 있는 미즈시마 지구에 대한 환경조사(저질 샘플링)를 실시하였다. 샘플링을 하면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자못 궁금했다. 8월 20일, 견학단은 아침 일찍 분주히 서둘러 오카야마 공항을 출발하여 인천공항에 도착하니 오후 2시... 또다시 버스를 이용해서 고막 6시간을 달려 여수에 도착했다. 4박 5일의 일정을 모두 마친 것이다. 견학단은 해산하면서 다음 일정을 약속하였다. 이번 견학단 구성원이 정기적인 모임을 갖기로 결정하면서...

▣ 어린이 환경도서 소개

어린이도서연구회가 선정한 2004올해의 어린이 환경책 10권(1)

김진영
(동화읽는어른모임 회원,여수 환경운동연합 회원)

자연을 사랑하는 뚝쟁 소년'의 '의정이 광활하고 아름다운 대자연속에서 순수하게 파이난다.

6권: 내가 사랑한 침팬지
제인구달 / 두레

4년 동안 순수한 침팬지의 눈과 마음으로 세상을 보려고 노력했던 제인 구달 박사의 재미있고 가슴 따뜻한 침팬지 이야기. 침팬지는 의리 사람과 비슷하여 도구를 사용할뿐만 아니라 만들 줄도 안다. 평생 동안 천밀한 가족 관계를 유지하는 사랑과 등정심을 가진 동물이다. 그런가 하면 공격성도 갖고 있어 전쟁 비슷한 것도 치른다는 놀라운 사실을 들려준다. 도 세계적인 등물행동학자이며 생태운동가인 구달 박사는 침팬지를 비롯한 멸종 위기에 있는 모든 동식물을 보호해야 한다는 생명 사랑의 메시지도 함께 전해 준다.

7권: 라다크소년 뉴욕에 가다
헬레나 노르베리-호지 / 천초영 역 / 녹색평론사

라다크 른화의 가치를 잘 들려준 라다크 소년 리진은 미국에 갈 기회를 얻어 뉴욕에서 지내면서, 미국 문화는물질이 넘치고 화려해 보이지만 참다운 행복을 느끼는 데에는 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속한 른화의 가치에 대해 비르소더 잘 알게 된다

8권: 위대한 행무새
지나베리오 글 그림 / 느림보

자연을 보존하자는 즉제를 담은 환경 동화르서 인간의 욕심으로 파괴되어 가는 열대 으림을 되살리자는 뜻을 지니고 있다. 주인공 앵무새인 페트르스키르는 가스르 폐버하면서 자신의 고향인 브라질의 열대 으림에 가게 된다. 하지만 그 곳은 인간들의 개발 계획으로 황폐해졌고 페트르스키는 열대 으림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한다. 페트르스키의 끈안 슨 쉬는 숲과 노래 하는 자구가 이트아질 수 있을까?

9권: 동일의 싹이 자라는 숲
전영래글 박재철 그림 / 마루벌

이린이들에게 전쟁. 본단. 남북통일이라고 하는 역사. 정치적 사실들을 이해 시키기는 결코 쉽지 않다. 따라서 이책은 비무장지대의 독특한 등식물과 생태계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 스스르의 자연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다각적인 관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가은데 통일의 의미를 짐각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다. 남과 북의 어린이들이 비무장지대 생명른화재의 가치를 깨닫고 '우리의 소원' 통일에 대한 블라는염원을 담고 있다.

10권: 똑중 소년
콜린 타멜 글, 로버트 잉펜 그림 / 문학과지성사

파도가 들아치는 해안과 바람이 강한 도레 언덕에 사는 뚝쟁 소년. 즉년을 들러 싸고 있는 것은 온통 자연 그래르의 자연뿐이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이 뚝쟁 소년의 친구다 뚝쟁 소년은 아버지 원주민 할아버지와 함께 평온하고 아름다운 나날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사냥꾼들이 펠리컨 등지를 트람하기 잣밥는 것을 보게 된다.어렸게 살아난 펠리컨 댱전이와